

**Matthew Boucher와 Nathan Park 변호사, “재벌의 미래”를 논하다**

2020 04 2

출판물: **Global Competition Review**

코브레 & 김의 Matthew Boucher 및 Nathan Park 변호사는 Global Competition Review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의 경쟁법 감시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단속 추세를 논했습니다.

조성욱 현 공정거래위원장과 직전 위원장인 김상조 위원장 하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 특히 가족 중심 경영지배 기업 집합체인 재벌의 위반행위를 전에 비해 엄격하게 단속하고 있습니다. Nathan Park 변호사는 조 위원장이 재벌에 관하여 강경한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정부는 불경기 우려 때문에 단속 수위를 다소 낮출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Nathan Park 변호사는 “공정거래위원회는 계속 공격적인 입장을 취하겠지만, 동시에 경기 둔화 때문에 유화적인 접근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경향을 보면 이전보다 Qualcomm이나 Apple 등 외국 기업을 표적으로 하는 공정거래위원회 단속이 늘어 국내 기업은 혜택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Matthew Boucher 변호사에 따르면 그렇다고 재벌이 안심하기에는 이릅니다. “시장과 공정거래위원회의 전력을 보면 위원회는 대기업을 공격적으로 단속 중이며, 세계의 삼성과 엘지 등이 다음일 것입니다.”

집단소송 지원이나 국제 단속 기관과의 협업 등의 개혁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재벌의 위반행위를 좌시하지 않겠다는 신호라고 Matthew Boucher 변호사는 말합니다. 또한 이러한 단속은 “동시다발적으로 여러 관할권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Matthew Boucher 변호사는 “제 생각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명백하게 공격적인 반독점 단속을 추진 중입니다. 이 점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라고 재차 강조합니다.